

미국 과 NATO의 업체對 업체 협력을 활
 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년 제시되고 있지만 그 근간은 결국 장비표
 준화에 대한 것이다.

1989년에도 美 NATO간의 협력사업에 대해
 별다른 아이디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美 空
 軍은 Rockwell International社와 Panavia社로 하
 여금 현재 운용중인 1백20대의 낡은 Wild Weasel
 항공기를 Tornado로 대체하도록 할것인가.

Rockwell과 Panavia는 미 공군이 Wild Wea-
 sel의 대체기종으로 F-15 또는 F-16의 개조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
 들은 레이다표적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위한
 저공비행에서 Tornado의 탁월한 성능을 미 공
 군이 잘알고 있으며, 따라서 미 공군이 F-15나
 F-16 개조형 이외에 다른 기종을 선택할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미 공군은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F-15나 F-16을 개조하는 것 보다는 Tor-
 nado가 훨씬 저렴하다.

문제는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Tornado의
 전자팩케이지 즉對레이다Tornado가미 공군의
 소요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Rockwell과 Panavia가
 알고 있으면서도, 양개 회사가 전자팩케이지를
 포함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Tornado는 현재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Tornado는 주로 Wild
 Weasel의 임무를 대행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
 만, NATO의 Tornado와 유사할 것이다.

미국의 예산수립

Frank Carlucci 前 美 국방장관은 1988년초에
 『의회는 정부예산 통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장관께서는 어떠한 방산물자 구매전략을 가지
 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기계약」을

그 대응수단으로 답변하였다.

그의 이러한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월에 의회에 제출된 국방예산안에 잘 나타나
 있다. 대략 9개의 주요사업이 장기계약대상으
 로 선정되었는데, 국방성이 부품과 부분품 제
 조를 위한 별도의 가격효과적인 계약을 성사
 시킬수 있다면 10개의 사업이 더 선정될수도
 있다.

이 9개 사업중에서 이미 착수된 것은 McDon-
 nell Douglas의 C-17 수송기와 AH-64 Apache 헬기
 및 FMC의 Bradley 보병전투차량이다.

주계약자가 모든 부품과 부속시스템들을 구
 입하는 것보다 국방성이 적절한 부품과 비핵심
 부분품 시스템 계약자를 지정한다면, McDD의
 F/A-18 Hornet과 F-15 Eagle, Grumman의 F-14
 Tomcat 전투기, Hughes Aircraft社가 주도하여
 개발한 개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등도 장기계약의 대상이 될것이다.

William H. Taft IV 미 국방차관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방성은 90억불을 절
 약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Harold Brown과 James Schlesinger 등
 2명의 전임 국방장관이 이끄는 일단의 전문가
 들의 최근 연구결과는 지난 몇년간 국방성이
 이루어낸 주요 경영개선중에서 유독 예산분야
 만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의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장과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 John Hopkins 외교정책
 연구소의 핵심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연
 구팀은 12월에 「국방 재조직 검토사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팀은 국방성의 구매체계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보고
 서는 장기계약뿐만 아니라 각군에 별도의 장
 비구매부대를 설치할 것과 2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모두 좋은 방안이

기는 하지만 과거의 아이디어들과 별다른 것은 없다.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과 연구팀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지만, 의견제시가 곧 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과거부터 제시되어 온 많은 의견들중에 예산절감을 위한 별다른 묘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

이 보고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신임 국방장관 존 타워가 취임하기 전에 제출된 것으로, 실로 부시가 이 연구팀의 건의내용을 강령으로 받아들여 어떤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지옥(地獄) 휴게실

한 사나이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수문장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기 있는 문들중에서 네가 영원히 지내고 싶은 방을 골라야 한다.』

그때 어느 문 뒤에서 비명소리와 고통소리 및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나이는 얼른 다음 문으로 향하였다.

『이 안을 좀 볼수 있을까요?』

문을 열자 사나이의 눈에는 허리까지 차는 똥 속에 사람들이 꽂 들어차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과히 나쁘지 않군. 이리 가야 겠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문이 닫히면서 빗장이 질러지고,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지시가 떨어졌다.

『자, 커피시간 끝! 다시 물구나무서기 시작!』

이제 국민들은 국방조달 문제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다. 어쨌든 부시는 조달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Jim Schlesinger는 『국방성의 예산문제 뒤에 숨어있는 것은 그렇게 허황된 것은 아니다. 다만 비능률적인 뿐』이라고 흥미있는 논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정책의 실행이 비효율적이라는 뜻인가.

국방성의 예산기구중에서 개혁을 요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고려하여 어떠한 주요장비들을 어떻게, 언제 구매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과정을 개혁해야할 것이다. 사실 국방성은 너무 촉박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비상의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국방성의 구매국만이 져야할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방위소요는 백악관, 국무성, 국가안전보장회의등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와 우주무기에 강조를 두었던 것과 같이 군사장비구매 개혁을 수립, 유지하기 위한 실무진을 백악관이 구성한 후에야만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폭격기 가격

이제 그 누구도 B-1 폭격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폭격기라고 말할수 없게 되었다. B-2 스텔스 폭격기 사업은 거의 6백90억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최근에 대당 5억1천5백만불이 소요되는 항공기를 생산해냈다. 1980년대초 이 사업이 착수될 당시 미 공군은 4백억불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弓)

< MILTECH 89/2 >